



셋째,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...
재원이 거의 들지 않는 청사 필요

그런데 문제는 **고양특례시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다**는 것입니다. 재정자립도란,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재원에 대한 자주재원(지방세 및 세외수입)의 비율을 말하는데, 그 지자체의 자율적 재정 운영능력을 나타냅니다. 2022년 기준 **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32.8%로 매우 낮은 편**입니다. 인구가 비슷한 성남시(62.2%)와 비교하면 약 30%p나 낮고, 지난해 함께 특례시로 출범한 용인시(48.7%), 수원시(44.2%)보다도 낮은 수준으로,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. 따라서 신청사 건립을 위해 **4천억 원을 투입하게 되면 고양시의 재정상황은 더욱 더 열악해질** 것입니다.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공유자산을 매각하거나 건립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신청사를 짓고 있습니다. 이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태일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. 고양시의 현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, 새로운 청사를 짓기보다는 **기부채납된 건물을 활용함으로써 재원이 거의 들지 않는 청사를 마련하는 방안이 시민을 위하고 고양의 미래를 위한 길**이 될 것입니다.

넷째, 신청사 건립기금 2,200억 원...
원당 발전에 투입

고양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및 부족한 가용재원 문제를 감안하여, 시 본청을 이전할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했습니다. 이에 따라 시 본청을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신청사를 건립하는 대신 **백석동으로 이전한다면 4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**됩니다. 이에 따라, 당초 청사건립을 위해 마련한 **2,200억 원의 기금은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등 원당 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**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는 고양시의 균형발전 및 자족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.

Q&A

청사 이전에 따른 오해와 진실

Q 청사 이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의견수렴 절차는 없다?

A 청사이전 발표는 정책방향 및 입장 발표로, 앞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시민, 시의원,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입니다.

Q 원당지역이 공동화·슬럼화 된다?

A 고양시는 현 원당 청사에 사업소 및 산하기관을 입주시키으로써 시청사 기능을 유지토록 할 방침입니다. 또, 2,200억 원 상당의 청사건립기금을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에 투입하여 원당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.

Q 덕양과 일산의 지역균형 발전이 저해된다?

A 덕양지역은 향후 창릉신도시와 일자리 거점이 들어서고, 최근에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전 예정 등 기업 유치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 앞서 언급한 원당 시청사 기능 유지,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도심 재개발사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. 또, 3,200억 원 규모의 환경부 통합하천사업 프로젝트를 통해 창릉천은 고양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시 본청을 백석으로 이전하여도 덕양과 일산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.

Q 청사 이전으로 덕양 및 고양 북부 교통 소외된다?

A 고양은평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으로, 시 본청을 백석으로 이전하여도 역사 설치 취소 등의 교통 변화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 고양시청역을 당초 계획대로 유지함은 물론, 식사동 등 고양 북부로의 추가 연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 고양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식사동과 같은 고양선 연장 사전타당성 검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또, 식사동을 비롯한 중산, 탄현, 고봉 등 고양 북부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

Q 이전비용 및 매몰비용 등 손해비용이 상당하다?

A 추정이 불확실한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을 과다하게 손해비용으로 포함 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, 실제 이전 시 발생할 비용은 4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신청사 건립 시 발생하는 4천억 원(추정비용)을 절감하게 되며,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한 2,200억 원은 원당지역 발전에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.

Q 백석 업무빌딩 매각이나 임대 시 발생할 수익이 박탈된다?

A 추정 매각비용이나 임대수익 예상액은 기회비용의 추정가치일 뿐이며, 같은 논리라면 신청사 건립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얻을 이익창출 등의 기회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 또, 현재 부동산 경기에 비춰 볼 때 업무빌딩 매각이 언제 성사될지도 불투명합니다. 아울러 고양시가 임대사업을 하게 된다면 백석동 주변 빌딩이나 오피스텔들의 공실화를 가중시키으로써 지역 경제 붕괴를 초래하는 역효과도 우려됩니다.

Q 청사 이전으로 백석동 교통 혼잡 심화된다?

A 청사를 이전할 경우, 백석 업무빌딩을 공공청사로 변경하고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차량진출입로 개선, 주차공간 확대 등 교통개선대책 마련할 계획입니다.